


구당 모임의 정치 개혁 선언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43267



충남북지역
지구당위원장
초청간담회(유성)



이합집산의 부끄러운 야당사,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 설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가는데,
정치권은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합집산의 야당사,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역할거주의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분열과 줄서기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국민통합을 실현할 정당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6.27지방선거의 참뜻이 배반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수습하고 조사해야 할
야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27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분열은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6.27선거의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대의와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 정당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모습이 왜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 바른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求黨과 改革을 위한 전국 시구당

일시; 1995년 7월 20일 오후 2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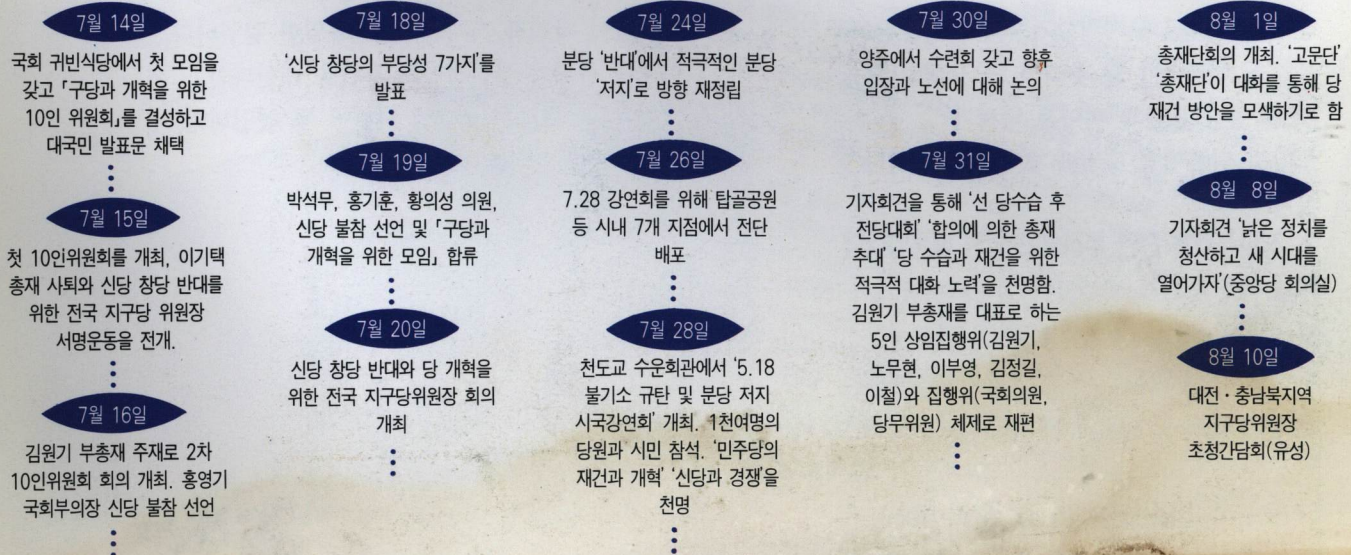


민주당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취지문

6.27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은 수권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주당은 겸허하게 정권교체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이사장의 독단적인 신당 창당은 돌연 정치권에 회오리를 몰고 왔으며 단결과 전진을 해야 할 시기에 분열과 퇴보를 가져옴으로써 혼란과 우려를 야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을 이끌어온 양심적인 정치인으로서 대의와 명분을 생명처럼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을 구하고 나아가 개혁 발전시키는 데 있다.

경과보고



안타까운 분당과 민주당의 오늘,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칭)의 창당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1. 심각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6.27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김대중 씨의 복귀에 대한 지지도 아니었고
민주당 분열에 대한 지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대의에 어긋난 분열은,
심각한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부도덕한 3당야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민족과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야권통합을 통해 탄생한 민주당은
이 시대의 유일한 국민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분열과 지역할거주의의 재등장은,
통일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87년 양김 분열의 뼈아픈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정당정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당내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이견들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해결되어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신당을 만든다면
민주주의 핵심인 정당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1. 분당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함께 해온 우리 모두는 우선,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저희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이기택총재에게
그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2. 새 출발을 위해 이총재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환골탈태하여 새 모습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적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기택 총재가 살신성인의 용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출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치발전 도움안된다" 58.8%

동교동 신당창당	27.5	바람직	71.1	바람직하지 않다
신당창당시 지지여부	29.7	지지할것	67.9	지지하지않을것
신당의 지역당한계	25.9	벗어날수있을것	65.4	벗어나기힘들것
민주당분당의 근본원인및 책임	34.8	DJ 및 동교동계	26.0	KT 및 이기택계
	35.2	양쪽모두		

新黨창당 바람직 "27.5%부" 점수충일수록 반대 많아

1면서계속
▲김이사장의 정계복귀 선언
1. 매우 바람직.....12.7
2. 대체로 바람직.....13.3
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40.9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2.3

DJ 복귀

- ▲김이사장의 정계복귀 선언
1. 매우 바람직.....12.7
 2. 대체로 바람직.....13.3
 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40.9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2.3
- ▲동교동 신당창당
1. 매우 바람직.....6.3
 2. 대체로 바람직.....21.2
 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39.6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1.7
- ▲만약 동교동계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는가
1. 매우 지지할 것 같다.....11.2
 2. 대체로 지지할 것 같다.....18.5
 3. 별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31.4
 4.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36.5

설문및응답集합
한 신당이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1.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25.9
2.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65.4

다 하는 막기... 42版
다 하는 막기... 42版
다 하는 막기... 42版



金相澤

□ 신당, 민주당권 향배에 촉각 구당파 장악 '최악' 평가

백기철 기자
민주당 당권의 향배가 야권의 재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민주당 사태를 보는 가치 새정치국민회의쪽의 시선...
민주당 당권 초기 나들...
민주당 당권 초기 나들...
민주당 당권 초기 나들...

1995년 8월 5일·토요일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기대, 저희들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의명분과 미래지향적 정치를 위해

“상당수의 호남인의 뜻과는 배치되더라도
신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치는 무엇보다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신당 불참 기자회견에서)

▪ 7월 19일

국회의원 박석무
홍기훈
황의성



지역주의와 줄서기 정치 반대

“정통야당인 민주당의 개혁을 도외시키고
진행되는 분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줄서기 정치행태를 조장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 7월 20일

구당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및 전국 지구당 위원장 일동



모든 기득권 포기할 각오로

“우리는 민주당을 국민 여망에 따라
재창당하고 민주세력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 7월 31일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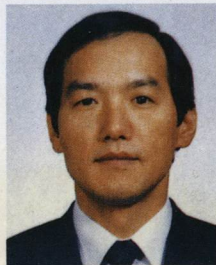


역사와 정치의 퇴행 좌시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김대중 이사장에게
희망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김 이사장에게 진취적 이상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 것을 천명한다.”

▪ 7월 26일

현 정국에 관한 각계 30대의 연대성명



거듭 태어날 민주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국민통합의 정치, 강력한 개혁의 정치

지역 분할을 반대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
수구 세력의 재등장을 반대하는 강력한 개혁정치,
권위적 리더십을 반대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정치,
거듭 태어날 민주당이 실천할 새로운 정치입니다.

2. 생명, 희망, 생산, 창조의 정치

정치 불신을 극복할 생명과 희망의 정치,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는 생산적인 정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를 여는 창조의 정치,
거듭 태어날 민주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3. 민주세력과 함께 하는 수권정당

민주헌정사의 맥을 잇는 유일한 정통야당,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는 진정한 국민정당,
합리적 민주세력과 연대하는 명실상부한 수권정당,
거듭 태어날 민주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삼국시대'니 '후삼국시대'니 하는 달갑지 않은 표현들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정치는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고집하며 그곳에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6.27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분당 사태는 무능한 현 정권을 견제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대의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분열은 지역할거주의를 통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는 구태의연하고 후진적인 정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접하는 저희들 또한 이 시대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실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정통야당인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희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고집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분당으로 야기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정통야당으로 민주당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바치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시대의 명제인 '변화'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국민통합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부끄러움을 떨치고 땀땀이 서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주시리라 믿기에 저희는 지금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민주당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낡은 사고와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산하고 생명과 희망, 생산과 창조를 펼쳐나가려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연락처

· 홍영기 부의장 : 788-2532
· 김원기 부총재 : 788-2254
· 노무현 부총재 : 783-4488
· 이부영 부총재 : 788-2634
· 김정길 전최고위원 : 780-2888
· 이철 국회의원 : 788-2872

· 김종완 국회의원 : 788-2568
· 이정구 국회의원 : 788-2033
· 유인태 국회의원 : 788-2755
· 김원웅 국회의원 : 788-2649
· 장기욱 국회의원 : 788-2873
· 원혜영 국회의원 : 788-2753

· 이상두 국회의원 : 788-2491
· 홍기훈 국회의원 : 788-2895
· 박석무 국회의원 : 788-2914
· 황의성 국회의원 : 788-2521
· 박계동 국회의원 : 788-2013
· 이강철 당무위원 : 053)424-1245